



2026년 6월 28일(제1306호)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시원한 물 한 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먼저 주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고,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은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신앙이 위로가 되기보다 부담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자꾸 내가 가능한 만큼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삶은 그대로 둔 채, 힘들 때만 잠시 주님을 찾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신앙이 단순히 마음 한편에 두는 생각이나 습관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결국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작은 이틀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시원한 물 한 잔’을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말을 조금 더 들어주는 마음, 지친 사람에게 건네는 짧은 한마디, 외로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시선. 주님께서서는 그런 작은 마음들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날에는 거창한 말보다 별것 아닌 한마디가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누군가 무심히 건넨 따뜻한 말에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작은 배려 하나에 하루를 버티 내기도 합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대단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것. 주님께서서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당신 곁으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려 했는지를 더 귀하게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계경준(시도요원) 신부
동해(해군 제1함대시령부)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2열왕 4,8-11.14-16나
- 회 목 송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제 2 독 시 로마 6,3-4.8-1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여라. ◎
- 복 음 마태 10,37-42
- 영 성 제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영암리에 주둔하고 있을 때였다. 교우인 박 중령에게 신세를 지기가 미안하여 방을 하나 구해 따로 나왔다. 반반하고 교통이 편한 집은 선발대가 먼저 와서 이미 다 점거한 후였으므로 우리가 얻어든 집은 다 쓰러져 가는, 주인도 없는 외딴 초가였다. 창문을 가마니로 막아 한기를 막고 방바닥에도 가마니를 깔아 습기를 막았다. 4월이었지만 중동부 전선의 밤은 너무도 추워 모포 2장으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매일 밤 선잠을 이루고 날이 밝아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양지에서 잠을 청하여 간밤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그러나 초가집일망정 내 집이라고 정하고 있으니 한결 마음이 평온했다. 이 때부터는 껌을 씹어 놓고 그 위에 제대를 만들어 미사도 지냈다. 그리고 문밖에 ‘군목부’ 라 쓴 풋말을 세웠다. 책상 하나 없고 병사도 없지만 신부와 목사가 주재하는 곳이니 군목부이기도 하였다.

한편, 바쁜 군 사목활동 중에도 군내 선교를 위하여 전교지를 발간하였다. 제11사단의 박희봉 신부는 1952년 8월부터 <성심>(聖心)이라는 16절 양면의 전교지를 발간하였다. 열흘 간격으로 발행하였는데 앞면에는 ‘현대 세계의 종말’,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제하에 강론 요지를 싣고, 뒷면에는 사단 군중부의 소식과 세계 교회의 소식을 실었다. <성심>지의 간행 취지를 박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聖心誌를 續刊하며〉

한국에 있어서의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은 한국 천주교회사와 더불어 180년에 달하는 역사를 갖기는 하지만 열국의 그것에 비겨 미약한 수준을 면치 못하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성심의 사도로 세계적 존경을 받고 계신 마태오 신부님의 내한을 기회로 그 박차가 가하여졌고, 그 뒤를 이어 6.25 한국 전쟁 당시 신학교를 사수하시다가 79위 치명 복자 첨례날 납치 당하여 그 종적을 밝히지 못하고 계신 이재현(요셉) 신부님의 열광적인 노력으로 요원의 불과 같이 전파되어 온 것이다. 예수 성심이 또한 나의 중군신부 생활과 인연이 생긴 것은 내가 중군신부로서 제2육군병원에 배속 당하여 초창기의 기초를 완성한 것이 예수 성심 성월이기에 그 부대 성당을 성심께 봉헌하고 주보로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4~5개월 전 본 부대에 전속 당하여 와본 결과 목자 잃은 신자들끼리 <성심>지를 발간하고 있었으므로 감격하여 금년부터는 본지 제목 그대로 더욱 발전시키기를 결심하고 이를 속간하게 되었다. <다음 주에 계속>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한 방울



한 방울 눈물이면 참 큰 것이 필요 없죠.
충분합니다.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위로하기에.

한 방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데.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목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 ‘군중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읽고 모집

- 분량: A4 빈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청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중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신청 시 소정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화이야기

베드로 성인의 십자가형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
1638~1640년경 제작 / 캔버스 위 유화, 310x170cm
성 베드로 성당(Sankt Peter), 독일 쾰른

사도 베드로 성인은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 거꾸로 매달리는 십자가형을 요청했는데, 루벤스는 바로 그 처형이 진행되는 긴박한 순간을 포착하였다.

높이 3미터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강렬한 대각선 구성을 띤 화면 중앙에는 거꾸로 된 십자가가 비스듬히 치솟으며 관람자의 시선을 위로 이끈다. 주변의 집행자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몸을 비틀며, 힘줄이 곤두서고 근육이 긴장할 정도로 온몸의 힘을 쥐어짜며 십자가를 세우고 있다. 베드로 성인의 오른발은 막 못질이 완료되었고, 맨 왼쪽의 처형 집행인은 온 힘을 다해 망치를 내리치며 왼쪽 발에 못을 박고 있다. 갓 박혀 들어간 못과 찢린 피부의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다.

화면 상단에는 천사가 나타나 올리브잎으로 만든 승리의 관을 내밀고 있다. 그러나 처형 집행인들은 오직 십자가형 집행에만 몰두하여 천사를 보지 못한 듯하다.

질은 갈색과 검은색이 지배하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 붉은 옷감과 인물들의 피부색 그리고 처형 집행인 중 한 사람이 입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반사되어 보일 정도로) 광택이 나는 갑옷이 강렬하게 빛난다. 특히 베드로 성인의 푸르스름하면서도 흰 몸은 밝은 빛을 받아 화면의 중심이 되며, 천사가 위치한 상단 역시 상대적으로 밝게 처리되어 신성한 영역임을 암시한다.

베드로 성인의 얼굴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공포보다 신앙적 확신을 드러내며, 무언가 깊은 내면에 집중된 듯하다. 이렇게 루벤스는 폭력적인 육체의 세계와 천사가 상징하는 영적 승리의 세계를 동시에 제시하여, 순교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신앙의 완성이라는 종교적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심율 위한 미사 - 연중 제13주일: 예성대 정준교 신부

◆ 교구장 동정

- 명성대(공군제8전비단)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28일(주일)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